安東權氏宗報

■ 공로패, 감사패, 표창패, 위촉패, 임명패, 효행패, 소형간판 ■ 타올, 모자, 운동복, 깃발현수막,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배수 30여년 전통에 빛나는

🦚 가나기의

제작상담 : (02)741-7191-5 / 011-281-7191(권도현 사장) kana7191@hanmail.net gana7191@yahoo.co.kr www.SP1.co.kr

[월간] 2011年 8月 1日(月요일)

☎ 대표 (02)2695-2483~4 WWW,ANDONGKWON,ORG 종보보급소 (02)2695-2480

權氏 紀元1082年

第 434 號

忠莊公 權慄都元帥와 梨峙大捷

이치대첩 제419주년에 즈음하여

임진왜란壬辰倭亂은 1592년 왜구가 조선을 침략한 전쟁으 로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게 됨에 온 나라가 혼연일체 가 되어 나라를 수호한 전쟁이다. 이때 가장 큰 전공戰功을 세운 분으로는 육전에서는 권율도원수權慄都元帥 해전에서 는 이순신장군李舜臣 將軍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순신李舜 臣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활발했던 데에 비하면 권율도원수 權慄都元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관청신록이나 잡기류에 권율도원수에 관한 기록도 이순신 장군李舜臣將軍에 못지않게 많이 나타나 있다. 그러함에도 권율도원수權慄都元帥에 관한 연구가 저조한 것은 권율權慄 은 이순신李舜臣과 같이 충무공전서忠武公全書나 난중일기 亂中日記같은 저서가 후대에 전해지지 못한 것이 원인 중 하 나라고 볼 수 있다. 만약 공의 유고遺稿가 전해졌다면 공에 관한 연구도 활발했을 것이다.

오는 8월 26일 제419주년 이치대첩기념제梨峙大捷記念祭 가 금산군 주관으로 금산군 진산읍 묵산1리에서 성대하게 개 최된다.

이치대첩제는 왜군이 전 강토를 유린하고 호남의 곡창지대 를 점령하려는 기도를 권율이 이치(대둔산 자락)에서 격퇴함 으로써 이순신이 해전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크 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

이치대첩기념제梨峙大捷記念祭에 즈음하여 권율도원수의 탁월한 영도력(領導力)과 기지(機智)를 되새겨본다.

1592年 4月 16日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선조(宣 祖)는 "내가 듣건데 권율(權慄)이 쓸만한 재질(才質)이 있다 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호남(湖南)이나 거진(巨鎭)을 맡 겨보겠다."하고 광주목사(光州牧使)에 배하였다. 공은 광주 에 이르러 군영을 검열하고 17세의 정충신(鄭忠信)을 가려 뽑았다. 왜군(倭軍)은 2진으로 올라와 한성이 함락된 뒤 권율 은 전라도 순찰사 이광(全羅道 巡察使 李洸)과 함께 한성 수 복을 위해 함께 진군하였다. 이광(李洸)이 수원과 용인에 이 르러 공은 "이곳에 진을 친 소규모의 적과 싸워 병력을 소모 해서는 안되며 또 적은 이미 험한 곳을 점령하였으니 형세 (形勢)가 쳐다보며 공격하기에는 어렵고 지금 전라도의 군사 를 모아 구원하러 들어가는데 국가의 존망이 이 한걸음에 있 으니 한강을 건너서 임진(臨陣)을 막고 서로(西路)를 튼튼히 하여 군량미(軍糧米)를 운반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한 다음



임진왜란 조선군 무기(상:삼총통 하:각궁)



권율도원수 장흥 묘소(경기도 기념물 2호)

에 편리한 형세를 얻어서 예기(銳氣)를 기르고 틈을 엿보아 조정의 명을 기다림이 옳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장(主將)인 이광(李洸)은 듣지 않고 무모한 공격(攻擊)을 감행하여 대패 하고 선봉장 이지시(李之詩), 백광언(白光彦) 등 여러 장수 (將帥)들이 전사(戰死)하였으나 오직 권율(權慄)만이 군사 를 온전히 하여 광주(光州)로 돌아가서 후사를 계획하였다. 광주로 돌아온 권율은 군사를 모집해 진안의 웅치(熊時)에서 혈전으로 적을 패퇴시키고 1천여명의 의병(義兵)을 모집하 여 다시 진군하여 금산(錦山)의 이치(梨峙)에서 전주(全州) 로 들어오는 1만 5천의 소조천융경(小早川隆景) 정예부대를 맞아 궤멸시키는 대첩을 거두었다. 여기서 정충신의 지기를 받아들이며 군사들을 독려(督勵)하여 왜적(倭敵)을 격퇴시 키므로써 최후의 보루인 호남(湖南)을 보존(保存)하게 되었 다. 적들은 임진삼대첩(壬辰三大捷)중 이치(梨時)의 승리를 첫째로 꼽았다. 만약 梨峙의 승전(勝戰)이 없었으면 왜군(倭 軍)은 호남(湖南)을 유린하였을 것이며 왜적을 물리침으로써 권율(權慄)의 위용(威勇)을 두려워 한 왜군은 감히 다시 나 오지 못하여 호남인들이 생업에 안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남의 곡창을 시수(死守)하므로서 군량미(軍糧米)를 온전 히 보존하는 전략적(戰略的)으로 매우 중요한 전투였으며 이 전투의 승리로 이순신(李舜臣)도 전라좌수영(全羅左水營)에 발판을 튼튼히 할 수 있어 명량대첩, 노량해전을 성공리에 이 끌 수 있게 되었다. 의주행재소(義州 行在所)에서 최초의 승 전보(勝戰譜)를 접수한 선조는 기뻐하며 權慄을 나주목사 (羅州牧使)에 보임하고 부임하기도 전에 곧 전라도관찰사겸 순찰사(全羅道觀察使兼 巡察使)에 승진시켰다. 권율(權慄)은 관직(官職)이 급속히 승진하여 관찰사(觀察使)에 이르자 이 를 반대하는 여론도 없지 않았다. 이에 윤두수(尹斗壽)는 입 시하여 아뢰기를 "光州牧使 권율(權慄)은 기골(氣骨)과 도량 (度量)이 있어 참으로 장수감이옵니다. 전라감사(全羅監司) 는 이 사람이 적임자이옵니다."하였다. 권율이 방어사로 하여금 대신 이치(梨峙)를 지키게 하고

친히 전주(全州)에 당도하여 기율(紀律)을 일신(一新)하게 하고, 모든 장수를 불러 의논하여 말하기를 "지금 평양 이남 이 모두 적의 진지(陣地)가 되어버렸지만, 도성(都城)은 근 본(根本)이 되는 곳이니 먼저 도성을 수복해야 한다"하고 군 사 1만여 명을 거느리고 북진을 단행하자 각 고을 수령들과 의승장 처영(義僧將 處英) 등도 따랐다.



이치대첩기념비(금산군 진산면 묵산1리)

북진길에 올라 직산(稷山)에 잠시 머물고 있던 권율은 도 체찰사 정철(都體察使 鄭澈)의 만류로 잠시 북진을 주저하였 으나, 북상하라는 행재소(行在所)의 전갈을 받고 북진을 계 속하였다. 그러나 앞서 수원, 용인 간에서 크게 패한 이광(李 洸) 등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바로 북상하는 것을 피하고 독산성(秃山城,오산 시지곳동)에 들어가 진지를 구축 하였다. 전라도 관찰사 권율의 상소(上疏)를 접한 선조는 차 고 있던 칼을 풀어가지고 말을 달려 보내어 권율(權慄)에게 주며 이르기를 "모든 장수중에 명을 듣지 않는 자가 있거든 이 칼로 처단하라"하였다.

호남의 대군이 또 북진하여 독산성(禿山城)에 설진(設陣) 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왜군(倭軍)의 총사령관 우희다수가 (宇喜多秀家)는 후방의 연락이 단절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도성(都城)에 주둔한 많은 왜군을 풀어 삼진(三陳)으로 오 산(烏山) 등 여러 곳에 진을 친 다음 독산성의 아군을 밖으 로 유인하려 하였다. 이에 권율은 성벽(城壁)을 굳게 지키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따금 기습병(奇襲兵)을 내보내어 적병

■ 경기종목

을 베어 죽이고 적의 영체를 불사르고 하니 몇 날이 지난 다 음 왜군(倭軍)은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그 뒤 명나라 원군 과 호응하여 도성(都城)을 수복하기 위해 독산성(禿山城)으 로부터 서울 근교 서쪽 가까이로 옮기기로 하고 먼저 조방 장 조경(趙儆)을 보내 마땅한 곳을 물색하도록 하여 행주산 성(幸州山城)을 택했다. 조경에게 명하여 2일간에 걸쳐 목책 (木柵)을 완성하게 하고 이어 독산성으로 부터 군사를 옮기 시 시작했다.

권율(權慄)은 휘하 정병 4천명을 나누어서 전라병사 선거 이(宣居怡)로 선봉(先鋒)을 삼았는데, 자신은 조방장 조경의 군사 2천3백명을 거느리고 양천(陽川)을 경유하여 고양(高 陽)의 행주산성(幸州山城)에 진을 쳤으며, 선거이는 금천(衿 川) 광교산(光教山지금의 시흥)에 영채를 설치하여 도성의 倭軍을 견제하는 등 멀리서 성원케 하였다. 전라도(全羅道) 소모사 변이중(邊以中) 역시 정병 수천 명을 거느리고 양천 산에 주둔해 있으면서 자신이 감독, 제조한 화차(火車) 3백을 나누어서 권율의 진중으로 보내었다. 이때 휴정(休靜)의 고

제 처영(高弟 處英)이 의승군(義僧軍) 1천명 을 이끌고 당도하였으 나, 幸州山城에 포진한 총병력은 1만 명 미만 이었다.

한성(漢城)에 모인 왜군은 전군을 총출동 시켜 행주산성(幸州山 城)을 공격(攻擊)하기 로 하고 조선침입에서 한 번도 진두에 나서

본 적이 없었던 총대 장 우희다수가(宇喜多秀家)를 위시하여 본진장령(本陣將領) 들까지 3만의 병력으로 행주산성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권율 (權慄)의 지략(智略)과 통솔력(統率力)으로 성에 목책과 참 호를 파고 화차(火車) 수차석포 각종 총통(銃筒)으로 적을 맞아 모두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부녀자는 앞치마로 돌 을 날라 석전의 공을 세웠다. 그해 6월에 이르러 도원수 김명 원의 체직을 명하고, 권율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삼아 대신 도 원수(都元帥)로 승진 보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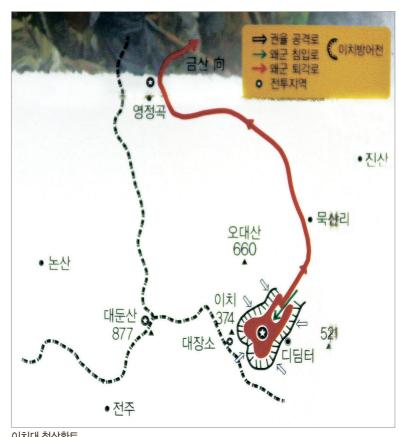
권율 도원수의 행주대첩 기념도



독산성 전적지 세마대(경기도 오산시 지곳동 사적140호)

10월에 한성판윤(漢城判尹)에 오르고 이어서 호조판서(戶 曹判書). 정헌대부(下憲大夫) 의정부(議政府) 참찬(参贊)이 되었으며 선조30년(1597년) 정유재란(丁酉再亂)이 일어 왜군 이 충청도에 이르니 공이 한강을 차단코자 유성용(柳成龍)과 입시하여 대책을 논하고 이후 직산, 울산, 순천등지에서 전승 을 올렸다. 귀로에 능동(陵洞)의 시조묘소를 전알하고 난중 에 성화보판(成化譜板)이 소실되므로 을사보(乙巳譜)를 편 수케 하였다.

공은 선조 32년 가을에 병이 나서 벼슬을 그만두고 강화의 향소로 돌아왔는데 병이 위독해지자 배를 타고 서울로 들어 가 7월 6일 우거하던 집에서 세상을 떠나니 도원수(都元帥) 나이가 63세였다. 뒤에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가 다시 영의정(領議政)에 가해졌으며, 선조 37년(1604) 선무공신(宣 武功臣) 1등에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으로 추봉되었다. 숙 종 34년(1708)에 시호는 처음 장렬(莊烈)로 내렸다가 후에 충 장(忠莊)으로 하고 부조(不桃)의 은전이 내렸다.





법무부장관 권재진씨 내정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신임 법무부장관에 권재진 청와대 민 정수석(58.사법시험20회)을 내 정했다.

대구 출신인 권재진 장관 후 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사법연수원 10기로 검사에 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된 뒤 대검 공안부장, 대검차 장, 서울고검장 등 검찰 내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정책 판 단과 분석력, 대외 조정력을 겸 비했고 친화력과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검찰 내외로부터 실력 과 신망을 인정받았다.

2009년 9월부터 2년 가까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 누구보 다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검찰조직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는데 합리 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것으로

崇祖理念確立,愛族思想鼓吹 安東權氏宗報 🚌

발행인 權正達 편집인 權景哲 인쇄인 權寧雄

발행장소 : 安東權氏大宗院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5-3(2층) 우: 158-857 전화 (02) 2695-2483/4 FAX (02) 2695-2485 安東事務所 :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418-1(3층) 우: 760-120 전화 (054) 857-7705/854-2256 FAX(054)854-2257

E-mail: ankwonjung@yahoo.co.kr andongkwon@paran.com

권오선, 권오복, 권태하, 권계동 記者 권경일, 권범준, 권오인, 권혁세 자문위원 : 권중달 권영한 권태하 권영섭 권오창 권오성

예금주 및 계좌번호(종친회, 대종회) 권 경 석 국민은행 448601-01-378019 (중앙종친회) 농 협 076-02-247343

종보사(개인독자) 우체국 : 종보사 010108-01-000369

③ 제23회 안동권씨 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

다함께! 화합하는 백만권문 세계속으로··· 전국 청·장년회 체육대회를 통하여 우리 안동권문의 위상을 드높이고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9월 25일 '대한민국 미래 중심투자 도시 영천'에서 제23회 안동권씨 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오니 권문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400m 릴레이, 단체줄넘기, 공굴리기, 줄당기기

번외경기: 어린이 50m 달리기

■ 일 시: 2011년 9월 25일(일) 10:00

■ **장 소**: 영천시민운동장

■ 연락처: 체육대회 준비사무실

주소: 경북영천시 오수동 218-1(세명정비공장 내) 전화: (054)338-8388 팩스: (054)331-0552

영철 청년회 사무국장 011-846-8687 팩스: (054)330-6189 E-mail: ai803@korea.kr

입 장 식: 10시(식후공개행사)

경기시간: 11시부터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 14:00부터(축하공연 병행)

폐회식: 16:00부터

안동권씨 영천 청·장년회 회장 권 병 혁